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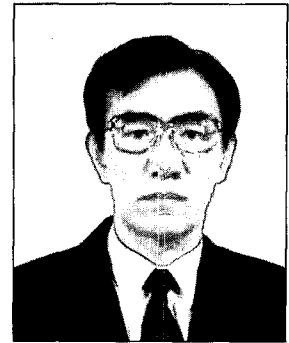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사업 '97년도 추진계획

## 추진현황

**지** 방소재 대학의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방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지역 현지에서 해결하고, 효율적인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방 공과대학이 당해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공동연구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사업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지역소재 대학(교)이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컨소시엄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본 사업은 1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정보, 시·도 및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정부가 50%이내에서 지원하며,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25%이상, 그리고 참여기업이 25% 이상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주관대학의 지원



**박병태**  
중소기업청 기술국 부이사관

금으로 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기관별 지원내용 및 사업추진 체계를 살펴보면 중앙 관리기관인 중소기업청에서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을 총괄함과 아울러, 컨소시엄의 지정 및 운영, 그리고 컨소시엄 운영실적의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방중소기업청 및 사무소 등의 지역관리기관에서는 관할 지역내에 소재한 대학과 중소기업간의 상호연계 및 알선, 지역컨소시엄 지정 신청서의 접수 및 검토, 컨소시엄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컨소시엄 운영실적 보고서의 접수 및 검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구인력

및 보유장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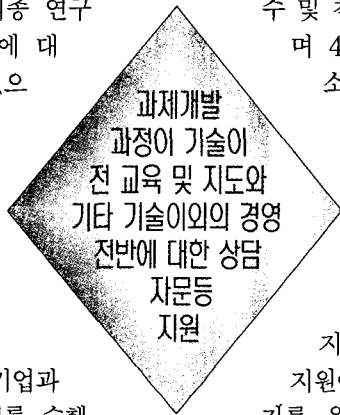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을 지원함에 있어 국립기술품질원은 지역컨소시엄의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최종 검토와 지역컨소시엄의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의 검토 등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컨소시엄 주관대학과의 협약에 따른 사업비 지원, 사업비의 적정운동을 위한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각 주관대학은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과제개발 과정이 기술이전·교육 및 지도와 기타 기술이외의 경영 전반에 대한 상담·자문등 지원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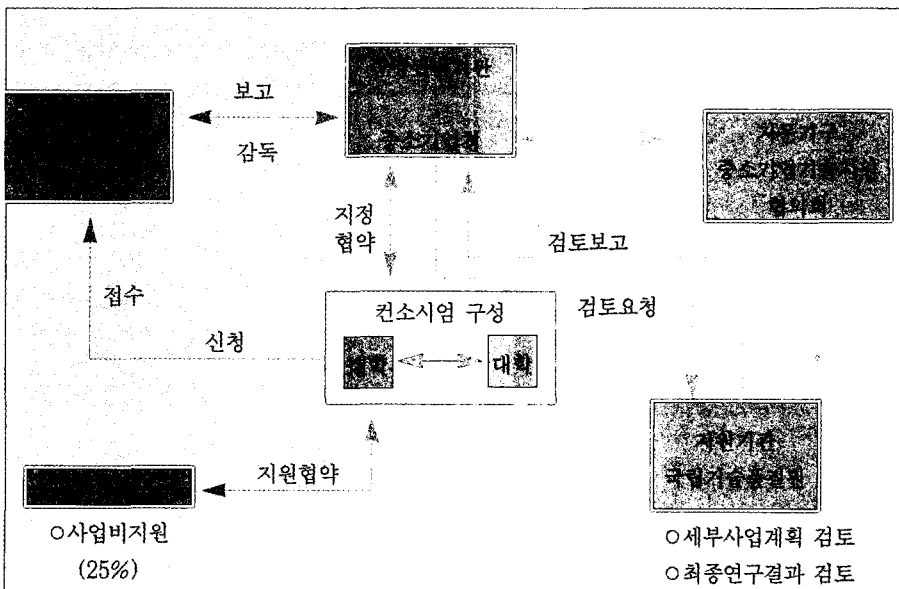
추진현황 및 성과

93년 19개 컨소시엄을 지정하여 처음 시행한 이후, 연차적으로 지역컨소시엄 수 및 참여기업 수를 확대하여 왔으며 4차년도인 96년에는 61개 컨소시엄에 1,012개 기업이 참여하여 960개 과제를 도출하여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에서의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사업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였으며, 각 주관대학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한편 95년도 사업에 참여했던 716개



〈표 1〉 사업추진 체계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업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85.2%, 기술개발·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86.6%로 나타나는 등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수행된 기술개발 결과 특허·실용신안 출원 238건, 시제품 개발 880건, 공정개선 734건 등 매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97년도 사업추진 계획

97년도의 사업추진 계획은 지역컨소시엄 수를 '96년도 61개에서 70개로 확대하되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과 기술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 81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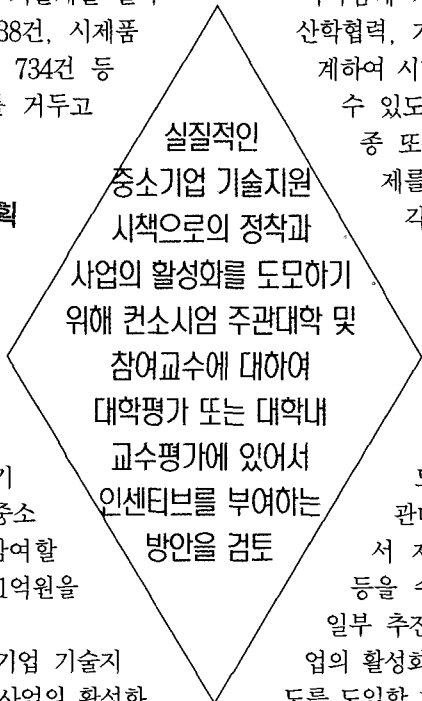
또한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지원 시책으로의 정착과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컨소시엄 주관대학 및 참여교수에 대하여 대학평가 또는 대

학내 교수평가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우수 컨소시엄 및 연구진에 대한 정부포상 및 우수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함께 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산학협력, 기술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전략업종 또는 기반업종의 개발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토록 각 시·도의 지원시책과 연계하고, 대학산업기술지원단 및 민간단체의 산학협력 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하게 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각 주관대학 또는 참여기업에서 제시한 개선 요구사항 등을 수렴하여 사업기간 등 일부 추진 방법을 개선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포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사업은 당초 93년 9월 처음 시작된 과제로 사



(표 2) 컨소시엄 구성 및 추진성과

(단위 : 건)

년도	지역컨소 시엄 수	참여기업수	기술개발 과제 수	사업성과		
				특허실용	시제품 개발	공정개선
93년(1차)	19	316	264	23	162	145
94년(2차)	40	786	566	88	371	298
95년(3차)	50	969	715	127	347	291
96년(4차)	61	1,012	960	-	-	-
계	-	3,083	2,504	238	880	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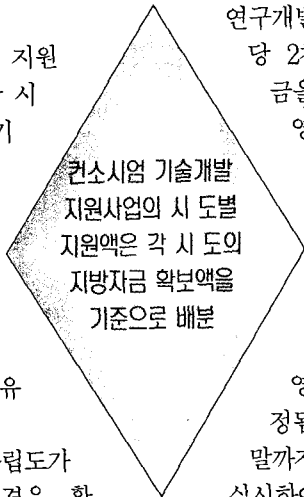
업기간이 매년 9월 1일부터 차년도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정부 및 시·도 지원금의 지급이 연말에 이루어져 초기 사업수행에 애로가 있어 왔다.

또한 연구개발 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하계방학 기간에 당해연도 수행보고서, 차기년도 사업계획 수립등의 업무가 편중되어 심도있는 연구개발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사업년도를 매년 7월 1일부터 차기년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여 사업비의 지급이 사업초기에 이루어지고,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현재 컨소시엄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시·도별 지원액은 각 시·도의 지방자금 확보액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지역에 대한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지역별 최대지원액을 현행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50% 이하인 낙후 시·도의 경우, 확보된 지방자금의 일정부(10%)을 증액 배정 함으로써 낙후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매년 우수컨소시엄 운영대학에 대해, 연구개발비로 지급되던 2억원(대학당 2천6백만원)의 인센티브 포상금을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용으로 사용토록 개선하여 지방중소기업 기술연수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다.

금년도에는 사업기간의 조정에 따라 평가시기 및 운영실적 보고서 제출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금년에 한하여 8월 말까지 제출, 9월 중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 10월초 중소기업기술박람회 기간중에 개최되는 산학연 컨소시엄 전국대회에서 우수컨소시엄에 대한 포상 실시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다